

시조(四条) 1호분 [가시하라시 시조초]

나라현 가시하라시 시조초(四条町)에 있다. 야마토의 3대 산의 하나인 우네비야마(畝傍山) 산의 북동부 평탄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주변부는 현재 국도가 교차하고 병원·경찰서 등의 건물이 늘어서 있는 경관으로 변했다.

고분시대 중~후기(5~6세기)에는 중·소형의 전방후원분·원분·방분으로 구성된 시조(四条)고분군이 형성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후지와라쿄(藤原京)의 조영에 따라 삭평되었고 발굴조사에서는 주호(周濠)가 확인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 중에 시조·쓰카야마(四条·塚山)고분(현 스제(綏靖)릉)은 분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 진무(神武)릉이 있는 장소도 일찍이 고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조고분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 1호분은 1987년에 시조고분군 안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고분이다. 서쪽에 조출부〔造出部:고분에 붙어있는 반원형 또는 방형 단상으로 전방후원분의 경우, 주로 원부와 방부가 결합되는 부분에 있다〕가 만들어진 방분으로 분구의 규모는 남북 길이 32m, 조출부를 포함한 동서 길이는 약40m이다. 내호·외호의 이중 주호(周濠)를 가지는데 내호에는 각 변에서 한 지점마다 주호를 바닥까지 파내지 않고 남겨둔, 마치 육교(陸橋)모양과 같은 곳이 확인된다. 외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남북 약 60m, 동서 폭은 75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매우 적지만 내호에서는 다량의 목제품과 하니와가 출토되었다. 목제품에는 새모양·방패모양·삿갓모양·의장(儀仗)모양·일산(翳)모양 등이 있는데 하니와와 같이 분구에 세우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목제품들은 「목제 하니와(埴輪)」나 「목제 수립물(立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시조 고분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일산 모양 외에 칼(刀)·창(鎗) 모양 등의 목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장송의례에 사용한 다음 주호에 폐기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주호의 조출부 주변을 중심으로 인물·말·사슴·멧돼지·개·닭 등의 형상하니와가 출토되었는데 본래는 군상(群像)으로 조출부에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인물에는 문신을 한 남자, 활을 쏜 남자, 씨름꾼, 화려한 옷차림(盛裝)을 한 남자 등 다종다양한 것이 있다. 동물 하니와는 각각 완전한 형태로 복원되었는데 말모양 하니와는 높이 106cm, 길이 120cm의 대형품으로 말머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말갓춤의 양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 개·사슴·멧돼지의 수립을 표현한 하니와에서 사슴은 겁이 난 듯 뒤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조 1호분의 형상하니와도 일본의 고분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분 축조시기는 중기 말엽(5세기 말엽)으로 생각된다. 이중 주호를 가진 몇 안 되는 고분의 하나이고 또 하니와나 목제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하니와나 목제품으로 꾸며진 고분의 외관을 복원하거나 당시의 풍습·제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